

배포일시	2019. 8. 5.(월) 11:00 (총 4매)		보도시점	2019. 8. 5.(월) 11:30	
담당부서	예보국 예보분석팀	담당자	팀장 이경희 주무관 우진규	전화번호	02-2181-0932 02-2181-0936

제8호 태풍 '프란시스코' 현황과 전망

- 6일(화)~7일(수) 전국 태풍 영향
 - ※ 6일 밤~7일 오전 강원도, 충청북도, 경상도 강하고 매우 많은 비 주의
 - ⇨ 시간당 20~50mm, 총누적강수량 최대 200mm 이상(경상해안, 강원영동)
- 제9호 태풍 '레끼마' 9일(금)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으로 북상



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예상 경로 및 주변 기압계 모식도

[태풍 현황]

□ 제8호 태풍 '프란시스코(FRANCISCO)¹⁾'는 지난 8월 2일(금) 09시경, 괌 북동쪽 약 1,120km 해상에서 발생하여, 5일(월) 09시 현재 일본 오사카 남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6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.

1)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(FRANCISCO)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남자 이름임.

[태풍과 날씨 전망]

- (태풍 강도) 이 태풍은 현재 강도는 중(최대풍속 시속 97km (초속 27m)), 크기는 소형(강풍반경 약 220km)으로 오늘(5일) 밤까지 현재의 강도를 유지하겠고, 6일(화) 밤~7일(수) 새벽 남해안에 상륙한 후 수증기 공급 약화, 지면 마찰 등에 의해 강도가 약해지겠습니다.
- 앞으로 태풍은 5일 밤~6일 새벽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1차적으로 약화되었고, 6일 밤에는 해수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해상을 지나 남해안(여수~통영 부근)에 상륙하면서 약화되었습니다.
- (태풍 경로) 앞으로 태풍은 우리나라를 향해 점차 북상하여 6일 오후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, 6일 밤~7일 새벽에 남해안(여수~통영 부근)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후, 7일(수) 오전에 충청도, 오후에 강원영동으로 이동하여, 밤에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.
- (강수) 태풍이 북상하여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6~7일에 전국에 순차적(남부→중부)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.
- 6일 오후(12~15시) 경남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점차 제주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었고, 7일 새벽(00~06시)에 전국(제주도 제외)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비가 오겠습니다.
- 이후, 태풍이 강원도를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함에 따라 7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,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 비가 그치겠으나, 강원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.

※ 예상 강수량(6~7일)

- 강원도, 충북, 경상도: 50~150mm(많은 곳 경남해안, 강원영동 200mm 이상)
- (서해안 제외) 서울,경기도, 충남, 전라도, 북한: 10~60mm
- 중부서해안, 전라서해안, 제주도, 울릉도,독도(7일): 5~40mm

[태풍 특징 및 유의사항]

- 태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해 6일 밤~7일 오전에는 태풍의 이동경로에 가깝거나, 그 우측에 위치하는 경상도와 강원도,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.
- (강수 집중) 특히 수증기가 높은 지대를 따라 상승하여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경상해안과 강원영동는 시간당 20~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, 총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으니, 시설물 피해와 산사태, 저지대 침수 등,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.
- (강한 바람) 6~7일에 태풍의 경로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90~108km(초속 25~30m)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, 그 밖의 내륙에서도 시속 54~72km(초속 15~20m)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,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등에 주의하기 바랍니다.
- (높은 파도) 한편, 태풍의 영향으로 5일 오후에 남해서부먼바다부터 물결이 점차 높아져(3m 이상) 6~7일에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6m 이상 높게 일겠고, 만조기간까지 겹치면서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, 해수 범람 및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[태풍 변동성]

-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 후,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, 이동속도가 다소 느려질 경우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져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[제9호 태풍 레끼마 전망]

- 8월 4일(일) 15시 경,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,1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‘레끼마(LEKIMA)²⁾’는 5일 09시 현재, 소형급 태풍으로(최대풍속 시속 86km(초속 24m), 강풍반경 약 220km)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86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34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 태풍 레끼마는 고수온 해역(29도 이상)을 지나면서 점차 발달하겠고, 9일(금)에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후 ①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②우리나라 주변 바람 방향에 따라 태풍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니,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2) 제9호 태풍 레끼마(LEKIMA)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과일나무의 하나임.